



지붕 유지보수 작업 중 추락



재해개요

· 2024. 02. 00.(화) 12:00경 충북 충주시 소재 0000(주) 공장의 자재창고 지붕 위에서 재해자가 노후 된 선라이트를 교체하기 전, 지붕에 쌓인 토사, 낙엽 등을 청소하던 중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약 4.3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함.



발생원인

▶ 사고 발생 원인

- (추락방지조치 미실시) 강도가약한 선라이트는 충격, 하중 등으로 쉽게 파손될 수 있으나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미실시함.
- (개인 보호구 미착용)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중 안전모 등 보호구를 미착용함.



예방대책

1 추락방지조치 설치

- 채광창(선라이트)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는 등 파손으로 인한 추락을 방지하여야 함
- 추가적으로 지붕 작업은 지붕의 가장자리로 추락할 위험도 있으므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,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또는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.

2 개인 보호구 착용

-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은 안전모,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하여야 함.

※ 본 D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